

골롬반 선교

2022년 봄호 vol.121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치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에페 2,14).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이제훈 신부와 가톨릭 청년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세상의 치유자들

안인성 패트릭 신부 • 본지 편집장



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 토마스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이중적이거나 복잡하지 않으며, 자기 생각을 군더더기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어서 언제나 저를 감동하게 합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직선적인 성격인데다가 원칙적,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찰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토마스의 반응을 보면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요한 20,25). 토마스의 성격에 딱 맞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문을 듣고 토마스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체포와 고문, 처형의 여파로 심한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들리는

소문과 흥분된 수다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보다 토마스 같은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분명, 많은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측면에서 ‘또 다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토마스의 직설적인 발언은 초대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했는지에 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사람들은, 체포돼 고문당하고 잔인하게 처형되었다고 알고 있던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확실히 복음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 정확하게 그분을 알아보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실패로 휩싸인 불쾌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많은 대중 종교의 정서와 달리, 우리 신앙은 완벽한 예수님과 맞물리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는 ‘상처 입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입은 잔혹한 상처는 그대로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살아 계신 예수님은 덧없는 유명이나 외계인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는 분입니다. 아울러 우리 또한 토마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토마스를 훌륭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에서 언급한 ‘꼭 필요한 또 다른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불안과 동요로 흥분한 채 더듬거리며 하는 말을 의심할 용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예상치 못한 증거가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댄 용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는 심오한 행동으로, 토마스는 살아 있는 주님과 연대하여 냉소적인 의심과 소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토마스가 다른 이의 상처를 만질 용기를 지닌 치유자가 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용기를 지닌 치유자들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선교사들인지요! “교회는 야전 병원”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처럼 교회는 상처 입은 이와 연대하는 치유자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누가 세상의 상처를 만지고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상처들의 치유로 이끄는 평화의 길들이 필요합니다. 독창적이고 담대하게 치유와 새로운 만남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평화의 장인들이 필요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225항).

이번 봄호에서는 새로이 한국지부 소임을 맡은 지부장 서경희 신부와 신학원장 김영인 신부의 첫인사를 전합니다. 2년 만에 열린 해외선교사교육 모습과 경기·인천 후원회원들의 얼굴도 지면에 담았습니다. 수원교구 정진만 신부가 연재해 온 사복음서 산책의 네 번째 순서로 요한복음을 소개합니다. 50여 년 한국 생활을 마치고 아일랜드로 귀국하는 기리암 신부와 골롬반회 회원이었고 현재 뉴질랜드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이 크리스토퍼 경으로부터 한국 선교의 은총을 청해 들었습니다. 또한, 후원회원 이옥분 선생은 생태적 회심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원사제 전보근 신부가 페루에서, 김정웅 평신도선교사는 대만, 그리고 이제훈 신부가 미얀마에서 선교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팬데믹 중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느님의 선교가 끊임없이 이어짐을 다시 확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세상을 치유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차례

- 02 마음을 여는 글 | 안인성 패트릭 신부
세상의 치유자들
- 04 한국지부 |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
성령의 새바람에 내어 맡기며
- 06 신학원 | 김영인 그레고리오 신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 08 한국 선교의 은총 | 기리암 신부
주는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았어요
- 10 페루 이야기 | 전보근 안드레아 신부
이상한 나라의 안드레스 신부
- 12 생태적 회심 | 이옥분 젤뚜루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 14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 | 편집실
제27차 해외선교사교육
- 16 미얀마 이야기 | 이제훈 아오스딩 신부
첫사랑과 함께 꾸는 꿈
- 18 성경과 데이트 | 정진만 안젤로 신부
사복음서 산책 (4) 요한 복음서
- 20 대만 이야기 | 김정웅 요한 보스코 선교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선교사
- 22 한국 선교의 은총 | 크리스 파렐리
난 오래전에 선택했네
- 24 후원회
- 28 골롬반 소식

성령의 새바람에 내어 맡기며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대전 출신이며 2000년에 입회하여 2014년 사제품을 받았다. 그해 대만으로 파견돼 신주교구 따후성당에서 원주민사목을 하였고, 이후 중국 우한에서 활동하였으며, 올해 1월 한국지부 지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많이 지치고 힘드셨지요? 저 또한 2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았기에 여러분보다는 조금은 덜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교사로서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남모를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얼마 전 휴가 온 동료 선교사와 오랜만에 술 한잔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 위험을 뚫고 어렵사리 본국에 휴가를 오긴 했지만, 선교지에서 함께했던 이들 생각에 좌불안석하며 순간순간 떠오르는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 그곳에 남아 있는 동료 선교사들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는 동료

의 취중 진담을 듣고 저는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2년 전, 중국 주교단이 대전교구를 방문했을 때 통역으로 잠시 수행하러 왔다가 코로나 사태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2년을 지내는 동안, 중국 우한으로 돌아갈 용기가 제 안에 없었고, 한국 생활에 만족하며 선교지에 대한 그리움과 생각이 지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더욱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나 자기 가족과 고향, 문화,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외방선교에 투신한 동료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핑계가 있었다 치지만, 지난 1월 한국지부의 대표로 임명을 받았으니 적어도 3년 동안은 얼굴 들고 싶은 욕심이 앞서도 그럴 수 없다는, 그래서 안 된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울림에 가슴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뜨게 됩니다. 저 또한 한생을 주님을 위해, 선교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주님과 그분의 피조물들을 위해 투신을 다짐한 외방선교사이기 때문에, 익숙한 고국에서 소임을 맡은 봉사자로서 더욱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사진 제공: 서경희 신부



대만 마오리현에 위치한 원주민 마을 따후촌에서 사목했을 때

그날 동료 선교사와의 친교와 나눔을 통해 저 자신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다시금 깨우쳐 주셨듯, 친교와 나눔의 가치와 그 열매는 우리 모두를 향한 그분의 초대라 하겠습니다. 친교와 나눔은 성골롬반외방선교회가 끊임없이 지향해 온 하느님 나라를 위한 여정의 중심입니다. 골롬반 선교사들은 선교 여정에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를 성찬례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친교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내어 주신 당신 몸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 성찬례의 식탁으로 하느님 백성이 끊임없이 모일 수 있도록 초대하여 예수님과 친교가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 골롬반 선교의 핵심입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새롭게 전 세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새바람, 시노달리타스에 친교와 나눔이 빠진다면, 팔 없는 찢빵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은 폭풍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고요하고, 잔잔한 미풍 속에 우리의 코 끝을 살짝 스쳐 그 간지러움에 기쁜 미소를 살짝 짓게 하는 가벼운 바람과 같습니다. 이렇듯 너무나 가벼워서 우리 일상 안에서 놓쳤던 성령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위하여 혼자만이 아니라 선교 여정에 함께하는 모든 후원회원, 협력자,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성령을 향해 마음과 눈, 그리고 귀를 활짝 열고 걸어가하고자 합니다.

골롬반회가 친교와 나눔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를

중국 우한 한양성당 사제관 앞. 이 성당은 골롬반회 창설자 갈빈 주교가 설립하고 추방될 때까지 사목했던 곳이다. 필자는 정기적으로 이곳 교중미사에 공동 집전자로 참여했으며, 성사를 집전했다.

향한 여정을 견도록 함께해 주시는 후원회와 협력자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지부장으로서, 장상으로서 하느님 뜻에 맞게 영들의 움직임을 식별하여 선교 여정에 함께하는 모든 이와 하느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 지도록 주님께 청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꾸준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올해 또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을 전해 주신 주님, 당신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여정에 함께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축복하소서. 알렐루야! 후

강구나왕 탁 까이 까춘!

(케추아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김영인 그레고리오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11년 사제서품 후 그해 페루에 파견되어 리마에서 도시빈민사목을 하였고, 이후 고산지대인 쿠스코의 아나오카 지역으로 가서 잉카 원주민을 위해 사목하였다. 2020년 한국지부 신학원으로 발령을 받고 귀국하여 2021년 11월부터 신학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고통으로 한창 몰아붙였던 2020년, 많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근 10년간 선교했던 페루를 떠나 순명과 사명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와서 1년 동안 양성 지도자 과정을 받으면서 ‘청정’과 ‘식별’과 ‘함께’(하는 교회-시노달리타스)함에 대한 성찰과 나눔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말과 이론만을 앞세우기보다 봉사하고 섬기는 사제, 행동과 실천으로 사명을 다하는 양성자의 마음가짐을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예수님은 말과 이론에 멈추어 계시지 않고, 행동과 실천으로 모범이 되는 분임을 확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두려워하고 의심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귀 기울이십니다(경청). 그들에게 평화를 비시며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식별). 이 말씀 속에 봉사와 섬김이라는 선교사의 기본자세와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파견받으시면서 파견하시는 선교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맞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

“신부님, 사진은 그만 찍고 여기 와서 같이 먹어요!”
미사 후 각자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는 공소 신자들

사진 제공: 김영인 신부



‘골롬반선교, 청탁, 원고

시지를 전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 믿는 사람은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며, 이는 선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이는 행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강조하신 “함께 떠나서 찾아가는 교회의 모습”(『복음의 기쁨』 20항 참조)입니다. 그래서 골롬반회는 희망의 메시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하고 고픈 이들을 초대하여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선교사제가 태어나기까지 과정은 양성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골롬반회를 구성하는 모든 하느님 백성이 ‘함께’ 동반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후원회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정성을 양성 과정의 자양분으로 삼아 지덕체를 훈련하고 교육받으며, 선교사로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갑니다. 매일 바치는 공동체의 기도 안에서,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하며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축복을 비는 기도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교사에게 원동력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찰하는 것은 선교사 삶의 중심이며, 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겸손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난 앞에 겸손하게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의 경험에 감사해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기억하여 이를 나누는 것은 선교사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페루 안데스산맥에서 하는 활동은 많은 공소 방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신자들을 기다리며 저는 빈 공소 앞에서 산을 향하여 외칩니다. “와이께 빠나이꾸나 미사망 하무이치시!” 원주민 언어인 케추아어로 “형제자매 여러분, 미사 하러 오세요!”라는 뜻입니다. 함께 불러 모으는 성찬의 나눔에 초대하는 외침입니다. 제 소리를 듣고 집이나 일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공소로 모여 옵니다. 안데스산맥의 공소 미사는 두 번의 성찬 나눔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부활을 통한 성찬 전례에서 감사의 절을 올리며



시종직과 독서직 수여식 후(왼쪽부터 필자, 이정탁·성요셉 신학생, 오기백 신부)

영적 풍요로움을 나눕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는 약속이나 한 듯 누군가가 보파리에서 꺼낸 삶은 감자와 추노(Chuño 감자를 열려서 건조한 잉카 원주민의 주식)를 먹으며 두 번째 성찬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지닌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감사’를 나눔으로써 서로를 기억하고 초대하며 서로가 풍요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양성 과정에 있는 신학생들도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부족하지만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감사의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가난 앞에 끊임없이 겸손을 갈망하는 선교사제가길 간청합니다. 부족함을 나누는 지혜를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소외된 이의 마음에서 따뜻한 정을 느낄 줄 아는 선교사가 되기를 요청해 봅니다. 어려운 이론과 지식적인 표현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의 언어와 생각으로 표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성령께 맡깁니다.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 부활을 함께 축하합니다. ✠

한국을 떠나는 기리암 신부

주는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인터뷰 정리·김소영 세실리아

기리암 신부가 2022년 봄, 아일랜드로 귀국합니다. 1968년에 한국으로 파견되어 여러 교구에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노동자, 이주민, 재소자를 동반하며 성실하게 일한 선교사입니다.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 만나는 이에게 위로가 되어 준 친구이자 목자입니다. 고국으로 부르신 주님께 응답한 기리암 신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선교 여정을 행복하게 견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국을 앞두고 나눈 대화를 기리암 신부의 한국 친구들에게 전합니다.

귀국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러 느낌이 떠오릅니다. 하루는 매우 기쁘고 하루는 섭섭하며 쓸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몇 해 전부터 가족과 이웃들이 저에게 언제 오겠느냐 이제 가까이에서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 본국에 돌아가 골롬반회 회원으로서 후원 활동도 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했던 일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다른 선

교사들보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몫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편안합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기에서 마쳐야 합니다. 친구들을 두고 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 때문에 친구들이 마음 아파해서 힘듭니다. 그렇지만 고향에 가도 관계는 계속 이어지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맙시다.

광주에서 후원회를 맡으셨고, 최근까지 원주 후원회 미사를 담당하셔서 후원회원들과 각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후원회원들, 언제나 고맙게 매우 고맙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후원회원 없으면 우리 골롬반회도 없어집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백 년 전 골롬반회의 처음부터 후원회원들이 도와주었고, 30여 년 전부터 한국인 후원회원들이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광주후원회 담당으로 광주, 목포, 순천, 전주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정성, 깊은 관심 덕분에 우리가 맡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해외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에게



① 안동교구 예천성당 사목 시절(맨 왼쪽은 전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 ② 교도소 재소자 영세식(제대 가운데가 기리암 신부) ③ 원주 후원회 월례미사를 마치고(2018년, 원주교구 주교좌 원동성당 만남의 방) ④ 외국인노동자들을 동반했을 때

일은 오늘도, 내일도 필요합니다. 선교사는 자신이 아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 메시지는 언제나 필요하고,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복음을 알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며, 선한 일을 한다면 잘될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지난 선교 생활을 돌아보면서 준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도전을 잘 넘어가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선교사를 환영해 주었고, 사회에서도 어디든지 가면 큰 대접,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어려워서 힘든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협조, 특히 교우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선교사로서 사제로서 도움을 많이 받아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활발한 교우, 다른 나라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고 고마움을 간직하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회원들은 우리와 손잡고 같이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성소국과 신학원에서 젊은이들을 동반하셨는데요. 선교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전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회는 선교 활동을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교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선교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환영하고 이분들을 잘 지도해야 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우선 선교사의 꿈을 꾸십시오. 선교사의



기리암 신부
Liam O'Keeffe

- 아일랜드 클레어 출생
- 1967년 사제서품, 이듬해 한국 도착
- 원주교구 황성·원동·황지, 안동교구 예천, 수원교구 안산 원곡, 인천교구 가정동에서 본당사목
- 교도소 재소자,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목
- 광주후원회, 지원사제 담당
- 한국지부 초대 성소국장, 신학원 부원장 역임

이상한 나라의 안드레스 신부

전보근 안드레아 신부

전주교구 사제이다. 아르헨티나에서 교포사목을 하며 라틴 아메리카와 첫 인연을 맺었다. 2014년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지원사제로 페루에 파견되어 수도 리마에서 도시빈민사목을 하였고, 현재는 페루 안데스산맥에 위치한 쿠스코에서 현지인 사목을 하고 있다.



공소 가는 길. 해발 4,100m 산의 풍경이 이채롭다.

“저런 건,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두사부일체」(2001년)라는 코미디 영화 대사다. 그 당시 사람들은 상식 밖의 일을 접하거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 대사를 따라 하던 기억이 난다.

라틴 아메리카에 내 삶을 내어 맡긴 지 벌써 13년째인데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접할 때마다 놀라워하는 나 자신이 새삼스럽다. 비단 토픽이나 이슈뿐만 아니라 그간 내 경험을 보더라도 마치 꿈만 같은, 아니 거짓말 같으니 말이다. 그래서인지 내가 겪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종종 한국에 있는 동료 신부들에게 들려주면 돌아오는 반응은 대부분 이렇다. “치이, 그런 게 어딴?”, “아이고, 애 안 되겠다. 한국에 빨리 돌아와야겠네. 외국에서 살더니만 뽕만 늘었구먼!”

이렇다 보니 예전과는 다르게, 이곳에서 체험한 일을 말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워졌다. 주변에서 선교지에서 경험한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려달라고 아무리 보채도 그저 조용히 입을 다물 뿐이다. 한국에 휴가갔을 때 교구 신부들과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한 신부 왈 “전 신부는 왜 선교지 이야기를 안 해? 우리한테 재밌는 이야기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 그러자 다른 신부가 하는 말 “뭘, 전 신부가 안 하고 싶겠어요? 이야길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하는 거겠죠.”

지면 관계상, 개인 체험 딱 하나만 간략히 말하자면, 현재 안데스 고산의 시골에서 살고 있는 필자는 벼락이 너무 무섭다. 2018년 성탄절 전야, 사제관에 벼락이 떨어져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벼락이 물탱크에 떨어졌는데 공교롭게 주방에서 설거지 중이던 나는 벼락으로 인해 정신을 잃고 나동그라졌고 집 안의 전선이랑 전구가 다 타버리거나 터져 버렸다. 이 사건을 나중에 한국 휴가 때 이야기했더니, 듣는 이들 심중팔구가 내가 이야기를



공소 미사 중 강론을 하고 있는 필자

엄청 부풀린 것으로 알아듣는 눈치다. (사실 이 사건은 아직도 부모님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다.) 이곳은 우기 때면 벼락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빈번하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벼락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두 건이나 일어났을 정도다. 벼락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니 여기서 이 이야기는 끝.

라틴 아메리카, 마술 같은 사실의 세계

이곳 안데스 선교지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의 자연과 사람, 문화, 역사 그리고 이곳에서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 내게는 모든 게 신기하고 마치 마술 같다는 생각이다. 어느 때는 환상적이면서 두렵기도 하고 기쁘면서 슬프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다. 여기에서 살면 살수록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니, 이상한 나라의 안드레스가 된 느낌이다(필자의 세례명 ‘안드레아’의 남성형 스페인어식 표현. 이곳에서 안드레아는 여자 이름).

라틴 아메리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마술적 사실주의(realismo mágico, magical realism)’이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신기하고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마치 마술을 보는 것처럼 풀어가는 것인데, 많은 한국 독자들이 이러한 소설을 접하면 매우 낯설어한다. 이곳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이들의 눈에는 평범하고 당연한 일들이 다른 문화, 다른 세계에서 온 이의 눈에는 매우 낯설고 평범하지 않기에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다.

안데스에 계신 하느님과 함께

오늘도 이곳 안데스-더 넓게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낯설고 이상한 하루가 시작된다. 마치 앨리스가 흰 토끼에 홀려 이상한 나라에 들어온 것처럼, 하느님께 홀려서 이곳 라틴 아메리카에 이끌려온 안드레스 신부의 이상한 나라 이야기는 계속된다. 비록 남들은 내 이야기가 과장되었거나 뽕이라고 웃어넘겨도 나에게 는 사실이기 때문에! ✠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옥분 젤뚜루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원이며, 강원도 삼척 주민이다. SNS에서 “삼척평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생태계 파괴 현장을 알리고, 지구 생명을 보호하는 실천의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갈매기 소리와 파도 소리를 찬미 노래로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삼척 작은 바닷가에 사는 젤뚜루다입니다. 저는 골롬반회 故 유 데니스 신부님께 세례를 받았고, 신부님이 모든 교우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모습을 보며 하느님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어려울 때 기도해 주셨고, 제가 핵 발전소 반대 운동을 시작할 때도 너무 힘든 싸움인데 어찌 견디냐 하시며 성무일도 때마다 책갈피에 저희 가족 이름을 적고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후에 편찮으셨던 신부님은 아일랜드로 가셨는데 투병 중에도 계속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통화 때는 떠날 시간이 가까이 온 것 같다고 하시며, 하느님 나라에 가서도 기도할 거라고 용기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하면서 힘들어도 지치지 않는 건 유 신부님의 기도가 제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된 건 2010년 청정한 삼척에 핵 발전소가 건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반대 미사와 집회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핵 발전소에 관해 알수록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생태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지구가 서서히 죽어 가고 있음을 정확히 알게 되니 두려워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미사를 드리고 촛불을 들었고,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1년 후부터는 한일 가톨릭 탈핵 교류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대의 도움과 반대 운동에 함께한 삼척 시민의 노력으로 10년 만에 삼척 핵 발전소는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삼척에 석탄 발전소가 건설된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이곳에는 석탄 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3km 반경 안에 있는 동해시에도 가

동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가 건설하는 블루파워 삼척 석탄 발전소(2,100MW)는 핵 발전소 2기 용량이며 시내 5km 반경 안에 있습니다. 삼척은 많은 시민이 수산물과 농산물로 생계를 이어가고 전국에 양식을 공급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석탄재가 날리고 암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로 농수산물도 오염되어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도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석탄을 들여오는 항만공사로 명사십리 맹방해변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병들어 가는 동안 저도 병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서울에 있을 때, 마침 광화문에서 금요일마다 <가톨릭기후행동>이 피켓을 든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피켓을 만들어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골롬반회 함 패트릭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삼척 상황을 전하자 신부님은 청와대 앞 삼척 석탄 발전소 반대 피켓팅에 동참해 주었고, 골롬반회 노혜인 평신도선교사도 합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톨릭기후행동과 함께 골롬반회 주다두, 피터동 신부님, 골롬반회의 협력자들이 삼척을 방문했고,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골롬반회의 연대는 놀라운 하느님의 연대로 느낍니다. 삼척은 골롬반 선교사들이 사목했던 곳입니다. 오래전 어려운 환경에서 그분들이 삼척에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되어 하느님 사업에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씨 뿌리지 않아도 양식과 자원을 무한히 제공해 주는데 우리 잘못으로 양식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오징어 말리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작업을 했으나 요즘은 오징어가 잘 잡히지 않고 있고, 10월에도 바다 수영을 할 정도로 심각해진 온난화를 체감합니다. 매일 아침, 파도에 밀려 온 온갖 쓰레기를 봅니다. 반쪽짜리 페트병을 주우면서 반쪽은 어느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것을 생각하니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몰상식한이가 버렸다면 화가 났었는데, 어쩌면 이 쓰레기는 나와 내 가족이 무심코 버린 흔적이 돌고 돌아 내 앞과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이 우리 앞 바다에도 올 거라는 생각과 함께 플랑크톤부터 고래까지 바닷속 생물들이 저항도 못 하고 도망도 못 가고 죽는 게 상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끼며 아침이면 해변에 나가 쓰레기를 줍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구를 위해 하는 노력 중 하나는 승용차 없이 사는 것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불편함을 여유로 여기고 느낌의 기쁨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모터배는 없지만 뗏목 배로 일용할 양식도 건집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얼마 전 파도에 밀려 온 페타이어(왼쪽 사진)에 쓴 문장을 나눕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사람도 자연도!”



삼척 바닷가에 자리한 필자의 집 앞 풍경

「골롬반선교」 창탁 원고



뗏목 배를 타고 바다 데이트 중인 필자 부부

제27차 해외선교사교육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복음화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집니다. 파견된 땅에 가서 살아 계신 예수님을 인격적 친교 안에서 생생하게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한정현 스테파노 주교(주교회의 해외 선교·교포사목위원회 위원장) 강론에서(2월 11일 파견미사)

<해외선교사교육>이 1월 10일부터 한달 간 콜롬반 선교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해외 파견을 앞둔 선

교사 19명(사제 11명, 수도자 6명, 신학생 2명)이 참여하였고, 이들은 남수단, 아르헨티나,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4개 대륙 11개 나라로 파견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돕는 본 교육은 전문가 강의와 모둠 활동, 현장 방문, 선교사 만남 등으로 구성되었고 선교학, 선교 영성, 다문화와 이웃 종교 이해, 생태, 인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추**



모듬 나눔



파견미사에서 한정현 주교가 수료자에게 안수하고 있다.



불교 이해_화계사 방문

“**세네갈 파견 손보람 마리아**(한국순교복자수녀회 수원관구)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 내면화되고 영적으로 다듬어진 교육이었습니다. 선교지에 먼저 가 계신 하느님의 얼굴은 어떻게 기대가 커진 시간이었고요. 그분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받아내서 흘러 넘치는 그분 사랑으로 주변을 적시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

콜롬반 선교



선교사와 만남_두봉 주교



한국 교회와 선교_옥현진 주교



선교체험과 영적상담_김정선 수녀



그리스도인과 사회 문제_박동호 신부



선교지 적응 및 자기 이해_이찬 신부

“**노승준 요한 바오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학생)

몰랐던 여러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의 소속도, 파견되는 곳도 다르지만, 선교라는 공통분모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선교 성소에 응답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



이슬람 문화와 종교 이해_구기연 박사



해외선교 영성과 파견지도_마필운 신부



파견미사를 마치고

첫사랑과 함께 꾸는 꿈



이제훈 아오스딩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14년 사제품을 받고 다음 해 미얀마로 파견되었다.
미얀마 북쪽 카친주의 미치나 교구에서 가정사목, 평신도사목, 재난 지원 담당을 하고 있다.

“첫사랑”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첫사랑의 얼굴, 풋풋하고 애뜻하며 때로는 안타깝고 힘들었던 순간이 아련히 떠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사들은 첫 발령지, 즉 처음 선교 가는 나라를 “첫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첫사랑이 된 미얀마에서 7년째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쌓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저마다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일하면서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어 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역 발전과 청년들의 직업 경험을 위해 운영하는 국숫집, 부모 교육, 청소년 교육, 노인 사목 프로그램 등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과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가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진지하게 들으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들의 삶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아이 같은 순수함과 삶의 열정에서, 진지하게 사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따뜻한 정을 표현하는 인간성에서,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용감하게 드러낼 줄 아는 대범함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또한 그 안에서 이방인으로서는 외국인 선교사로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겠다, 도움을 줘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교사의 자기만족, 존재감 혹은 본인의 희망, 성취감이며 부수적인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언어로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들의 생활과 행동을 따라 하며 그들의 꿈을 같이 희망하면서 그

안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 기대, 기쁨 또는 갈등이나 좌절 등 모든 것을, 비록 자세하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데, 마음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해외 선교사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2015년 11월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비로소 실현되었을 때 미얀마 전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같이 기쁨의 축제를 며칠 동안 지냈던 그날의 장면이 생생합니다.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듯 이 나라는 하루하루 자유롭게 변해 가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군부 체제하에 있었던 각종 제약이 풀리자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많이 접해 보고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유로움의 숨을 쉬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2021년 2월 1일 새벽에 미얀마 모든 지역이 정전이 되었습니다. 정전은 일상이라 몇 시간 후면 다시 들어오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오후가 되었는데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까지 연결되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 인지도 못한 채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2021년에 쿠데타라니 이게 말이 돼? 며칠 지나면 금방 철회되겠지.” 하며 처음에는 정말 안이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상황이 쿠데타로 인해 한순간에 엉망이 될지 그때까지만 해도 미처 몰랐습니다. 어느덧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어두운 상황이 지속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희생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별안간에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고, 직업을 잃고, 아이들은 학교가 폐쇄되어 교육받을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로운 숨을 쉴 권리까지 없어진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버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국수 가게

린 채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을 놓지 않고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우리 외국인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선교사로서 무력함과 좌절 또한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도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기적 감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남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같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 안에서 그들의 언어로 함께 소통하면서 그들이 품은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미얀마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멀리에서 저의 첫사랑 미얀마가 함께 꾸는 꿈을 지지 주시기 바라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 가정을 방문했을 때

사복음서 산책 ④

요한 복음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



정진만 안젤로 신부

천주교 수원교구, 독일 보훔 대학교에서 <마태오복음>을 주제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로서 <공관복음>, <가톨릭 서간>, <성경 희랍어>를 가르치고 있다.



출처: British Library Online Gallery

<성 요한 복음사가> 린디스파른 복음서 209b, 34x25cm, 영국 대영 박물관 소장

영적이며 신학적 복음서

정경 목록에서 마태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 다음 자리에 위치한 요한 복음서는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복음서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고대의 정경 목록 혹은

네 복음서를 포함하는 수사본 중에서 요한 복음서가 제외된 경우는 없었고,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의 신적 본질에 관한 요한의 증언은 초기 교회의 공의회가 채택한 교의의 형식과 내용을 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요한 복음서는 단순한 단어와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지만,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요한 복음서를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영적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분열 위기 속 요한 공동체

요한 복음서가 다른 세 권의 복음서, 곧 공관 복음서와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여러 저자에 의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본이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마태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가 각각 한 명의 저자에 의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기록되었다면, 요한 복음서는 최종본이 완성되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명의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복음서 저자는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제베대오의 아들인 요한으로 추정)로부터 예수에 관한 자료를 물려받아 예수 이야기를 기록했으며, 이후 편집자는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최종본을 완성하였습니다.

요한 복음서가 완성되는 과정에 요한 공동체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J. 롤로프, 요한 공동체의 발전

3단계). 예수가 사랑하던 제자가 설립하였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로 구성된 요한 공동체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일대를 중심으로 정주하였지만, 이후 유대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소아시아로 이주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론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한 무리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실제로 육신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반면(1요한 4,2), 다른 무리는 사람이 되신 예수의 육화 사건을 끝까지 믿으며 소아시아의 다른 그리스도교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때를 90-100년경으로 추정하는데, 요한복음의 최종본이 완성된 시기입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의 편집 과정에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복음서 편집자의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예수를 선재(先在)하시는, 곧 '한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시던 분으로 사람이 되신 말씀(로고스)으로 소개합니다(1,1-18). 말씀이신 예수는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어 신적인 세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지상적이고 인간적인 영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3,6; 6,63; 8,15; 17,2 참조). 하느님의 아들이 '살'을 취하여 인간이 되신 이유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6,33.51 참조).

말씀(로고스)의 육화(肉化)는 영지주의적 그리스도론에 반대하는 호교론적 입장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요한 1,14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하는 영지주의적 가현설(假現說, Docetism)을 바로잡기 위한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1요한 4,2-3; 2요한 7 참조). 선재하시는 말씀이 '살'을 취함으로써 예수가 하느님의

일상 안에서 복음을 더 깊이 맛들이기 위한 안내, <정진만 신부의 사복음서 산책> 1편 <마태오 복음서>, 2편 <마르코 복음서>, 3편 <루카 복음서>는 본회 홈페이지 『골롬반선교』 페이지 118호, 119호, 120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목동들의 경배>

렘브란트, 1646년, 캔버스에 오일, 65.5x55cm

출처: www.nationalgallery.org.uk

아들이시며 동시에 참으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살을 취한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생명의 빵이 되고, 십자가상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림으로써 하느님의 구원 사건은 역사적 차원에서 완성됩니다.

믿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요한 복음서의 저자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복음서를 저술하였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믿음을 통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20,30-31). 저자는 예수에 관한 다양한 전승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는데, 그 내용이 맺음말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 복음서의 독자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와의 만남으로 초대받으며, 믿음을 통해 그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선교사

김정웅 요한 보스코 선교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2007년 대만으로 파견되었고, 함께 파견된 이지영 크리스티나 선교사와 결혼하여 부부가 함께 15년째 대만에서 선교하고 있다. 에이즈 감염인 센터, 해외 입양 예정 영유아 보육원 등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지적장애인 센터에서 소임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이곳 대만에도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여러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관련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오래 살아왔는데도 현지인만큼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가 언제나처럼 어렵습니다. 알코올과 마스크를 필요한 만큼 구하게 되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그로 인해 불안한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혹시 2주 이내에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항상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염인수가 적은 나라여서 대만 사람에게 외국인은 기피 대상입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 중국어 발음을 들으면 대만인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고 슬슬 피하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살아온 곳에서 하루아침에 기피 대상이 되어 매우 슬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만 내 사람들 역시 행동 및 사고에 커다란 제한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실제로 떠나야 했고,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없게 될까 봐 괴로워했습니다. 저도 선교 활동을 계속할 수 없었고 심지어 방역 강화 기간 중에는 외출을 제한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 어떻게 성소를 보다 견고히 유지해 나가야 하는지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선교사인 저에게 새로운 성찰 주제가 되었습니다.

개구리 서식지 보호 운동에 참여했을 때, 대만 골롬반회 JPIC 담당인 필자는 이 같이 대만 환경단체들과 협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골롬반선교, 청탁, 원고



장애인 센터에서 소임하고 있는 김정웅 선교사

선교사는 사람들과 함께(Being) 살아가며 주님의 창조물의 참모습을 못사람들이 알아보도록 주님 뜻에 따라 조각해 나가는 조각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뜻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그 피조물의 참모습을 각자 받은 성소라는 정과 망치로 조금씩 드러나게 하는 일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사의 삶에서 제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은 주위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일입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감은 진정성 없는 동정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적장애인 센터에서 선생님을 도와 장애인의 손발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돕고, 장애인들이 화장실 갈 때나 식사할 때 보조도 합니다. 일상생활 대부분이 재개되었음에도 장애인 시설은 방역을 이유로 외부와 단절된 채 있습니다. 얼마 전 그곳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만났는데 그는 제가 그곳을 떠날까 봐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들을 버리고 떠날까 두려워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그는 외부와 차단된 채 장애인을 돌보면서 소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 활동을 못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저를 보내셨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그들을 떠나더라도 이 모든 상황이 안정된 후에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소임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때, 혹시 소임지를 본의 아니게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지인들도 일자리를 잃거나 장사를 그만두거나 월급이 동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상황에서 무력감으로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2차 백신을 접종하기 전까지 상당한 두려움을 겪었는데 접종 순간에는 온몸에 힘이 풀려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무거나 빨리 맞고 일에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보이지 않는 압력에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 저는 백신 접종을 선택하지 못한 분들이 겪었을 고민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저는 코로나 사태에 직접 경험한 여러 일을 통해 비로소 주위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성령께서는 제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저를 일깨워 주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겪은 크고 작은 시련을 통해서 선교사에게 필요한 공감 능력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성찰하면서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지면을 통해 후원회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은 거룩한 희생이며 선교의 원천입니다. 그 희생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난 오래전에 선택했네

크리스 파렐리(Chris Farrelly) 경
번역·배영재 요세피나

한국 이름은 이 크리스토퍼. 골롬반회원으로
1976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으로 파견돼
1986년까지 사목했다. 1981년부터는 서울 신림
10동 <사랑의 집> 설립을 돕고 그곳에서 살았다.

사제직을 그만둔 후 고국 뉴질랜드의 공중보건
분야에서 정의를 위한 활동을 해 왔다. 2000년
에 결혼하여 뉴질랜드 왕가레이에서 살고 있
으며, 취약계층의 인권 향상과 건강 증진, 사회 서
비스 시스템 개선 등 분야에서 헌신한 공로로 올
해 초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훈장과 기사 작위
(knighthood)를 받았다.



아내 수 씨와 함께

서울 신림10동 <사랑의 집>에서 활동할 때



오십 년 전, 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에
영감을 받고 이 지구상 어디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함께하
고 싶은 소명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 부르심은 여전히 제게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저는 골롬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파견되
어 많은 경우 생명이 위협받고 하느님의 모습이 부정당하는 상황
에서도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반대가 있는 곳으로 보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골롬반회의 사명에 끌린 주된 이유는
가난한 이들 옆에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가난과 불
의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과감한 삶과 부르심에 이끌려 저는 한국에 왔
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는 복음에 응답한 동료 선교사들과 한국
사람들과 일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여정은 저를 한반도의 여
러 곳으로 데려다 주었는데 그중에서도 서울 신림10동 달동네가 기
억에 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격려를 받으며 그곳에 도착한 후 5
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방 두 개짜리 판잣집에서 다른 골롬
반 선교사들과 지내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분투하는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이웃으로서 살았습니다. <사랑의 집>으로 알려진 이 공
동체에서 저희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심고 여러 모임과
보건 서비스를 개발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배려된 이들과 불의로 상처 입은 이들의 고통에
눈뜨게 해준 빛은 내가 살아있는 한
다시는 눈감지 못하도록 하네.
피로와 역겨움이 내 시야를 가릴지라도
두려움이 내 삶을 꺾어버릴지라도
나는 보지 않을 수 없네.
진실은 사랑의 칼날로 내 존재의 정중앙을 건드렸네.
보거나 아부것도 못 본 척하는 것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의 문제도,
내가 본 고통을 이야기하여
그 고통이 끝나도록 돕느냐의 문제도 아니네.
난 오래전에 선택했네.

<난 오래전에 선택했네>(A Long Time Ago I Made My Choice),
브라질 시인 티아고 드 멜로Thiago de Mello

그러나 기억에 남은 것은 제가 베풀거나 이룬 것이
아닌, 받은 것입니다. 외국인으로서 환영과 돌봄을 받
고 선물을 받았으며, 돌이킬 수 없이 변화했습니다. 주
는 자가 받는 자로 변한 것입니다. 선교사이기에 누리
는 특권이자 신비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게서 최고의 인간애를 엿볼 수 있었고,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날마다 긍지를 갖고 일어나 더 나
은 삶과 자식들이 더 좋은 것을 누리기를 꿈꾸며 용기
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하고 배운 것
은 평생 저와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삼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선교사로서 불의를 겪는 사람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은 <시티미션>이라는 단체를 이끌어 왔
는데,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에서 가
장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단체입니다. 뉴질랜
드는 자원과 식량이 풍부한 부국이지만 집도, 가족이
먹을 양식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수백 명의 직원과 수천 명의 자
원봉사자와 후원자들로 구성된 시티미션은 희망의 불
빛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임시 거처나
집을 마련해 주고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시설,
무료 건강관리 서비스 및 대규모 식량배급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시티미션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동안 제
가 선물받은 순간들을 돌이켜 보노라면 한국에서의
선교사 생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잡지에 몇
자 적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오래전 한국에서 저와 삶을 함께하면서 제 눈을 뜨게
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
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전 오래전에 선택을 했
고 그 선택은 제게서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

필자가 이끌었던 오클랜드 시티미션에 뉴질랜드 총리가 방문했을 때
(필자의 왼쪽은 아내, 그 옆이 저신다 아던 총리)



골롬반 선교의 동반자 경기·인천 후원회

도시화, 공업화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던 60년대 말부터, 골롬반회는 도시에서 새 터전을 일구는 이들과 함께하였습니다. 80~90년대에는 인천과 경기도에 여러 본당을 설립하고 본당사목을 비롯해 노동사목, 이주사목 등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골롬반 후원회는 지금까지 매월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미사를 봉헌하는 본당의 협조와 관심 덕택으로 새로운 후원회원을 만날 수 있어 기쁩니다. 골롬반 선교의 동반자인 경기·인천 후원회를 소개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더 많은 분을 선교의 동반자로 초대합니다.

인천교구 부평2동성당

매달 둘째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부평구

전요한 신부가 인천 후원회를
담당했을 때(2016년)



수원교구 원곡성당

매달 둘째 금요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



수원교구 하안성당

매달 넷째 금요일 오전 10시
경기도 광명시



문의

CMS 자동이체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그동안 자체 양식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셨던 회원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면, 회원님께서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고,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 게시판

•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 02-929-1366
이메일 : korseoulfund@columban.or.kr

•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 062-371-5824
이메일 : korkwangjufund@columban.or.kr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서울 후원회 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후원회 월례미사

2022년 4월 - 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장 소	문 의
서울	1일	6일	3일	1일	5일	명동 가톨릭회관	02-929-2977
인천	12일	10일	14일	12일	-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13일	11일	8일	13일	-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8일	13일	10일	8일	12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2일	27일	24일	22일	26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26일	24일	21일	26일	23일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27일	25일	22일	27일	24일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28일	26일	23일	28일	25일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29일	27일	24일	29일	26일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	-	9일	-	-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20일	18일	22일	20일	17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	17일	-	19일	-	서귀 북자 성당	064-733-5523
	19일	-	21일	-	16일	서귀포 성당	064-762-3444

• 코로나19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미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미사 참석 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서울 4월 십자가의 길, 5월 야외미사는 코로나 상황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인천, 원주 8월 후원회 미사는 없습니다.

• 인천 도화동성당 후원회 찬양미사(양창우 요셉 신부 주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공회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

)

선교 잡지 (3,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공회반외방선교회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한국지부 지부장·부지부장 임명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총장 팀 몰로이 신부는 1월, 한국지부 지부장에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 부지부장에 양창우 요셉 신부를 임명하였습니다. 1월 27일 서울 본부에서 이 취임 미사를 봉헌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선교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 회를 위해 성령께 도우심을 청하였습니다 (사진). 서경희 신부는 대전 출신으로 2000년 입회, 2014년에 사제품을 받고 대만과 중국에서 활동하였으며, 양창우 신부는 필리핀에서 활동한 후 한국지부 성소국장과 신학원장을 역임하고 서울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양창우 신부, 서경희 신부, 오기백 신부

신학원 소식

2021년 12월 신학원 종강미사에서 성요셉 요셉, 이정락 베라노 신학생이 시종직과 독서직을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이날 진가람 요셉, 박요셉 요셉, 심홍석 암브로시오 신학생이 유기서약 갱신식을 하였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 노승준 요한 바오로, 이우빈 라우렌시오 신학생은 27차 해외선교사교육을 받은 후, 언어 공부를 위하여 아일랜드로 떠났습니다. 해외 선교실습, 유학, 국내 수학 등 다음 단계로 한 걸음씩 내딛는 신학생들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서에 서명하는 진가람 신학생과 증인 안광훈 로벨도 신부(오른쪽)

해외 선교실습 떠난 신학생들

본회 유기회원 (왼쪽부터) 성요셉 요셉, 심홍석 암브로시오, 박요셉 요셉 신학생이 약 2년 동안의 해외 선교실습(FMA)을 위해 2월 18일 칠레로 떠났습니다. 출국을 앞둔 2월 14일, 서울 본부 성당에서 지부장 서경희 신부, 신학원장 김영인 신부 주례로 골롬반 가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파견된 이들을 축복하는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학생에서 이제는 선교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이들이 첫 선교지에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그곳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종근 신부, 조성근 신부 칠레로 출국

조성근 제노비오 신부가 1월 칠레로 떠났고, 김종근 도밍고 신부는 4월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두 선교사는 남미지부로 발령받았으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경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2008년 평신도선교사로 3년 동안 칠레에서 선교한 바 있는 조성근 신부는 2019년에 서품을 받고 사제로서 다시 칠레 땅을 밟았고, 김종근 신부는 한국지부장과 본지 편집장 소임을 마치고 선교지에 복귀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칠레 사람들과 재회한 기쁨을 나누고 행복하게 활동하기 바랍니다.



조성근 신부

김종근 신부

〈삼척생명평화순례〉진행

기후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각국 골롬반회 선교사들은 피조물을 보호하며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지부 선교사들은 1월 10일~11일 〈삼척생명평화순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가 신청자들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삼척을 방문해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만나 피켓팅, 도보순례, 삼보일배, 미사, 성내동성당 방문 등 일정으로 지구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연대 활동을 하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는 삼척 맹방해변에서 봉헌한 예절 (왼쪽부터) 함 패트릭 신부, 주다두 신부

이주민을 위한 사순절 미술 피정

대전교구 이주사목 〈천안 모이세〉에서 활동하는 골롬반회 주다두 신부가 안재선 제이슨 신부와 함께 필리핀 이주민을 위한 사순절 미술 피정을 3월 27일(신합덕성당), 4월 3일(천안 모이세센터) 진행했습니다. 피정에는 충남 거주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피정 지도를 맡은 제이슨 신부(미술 사목)가 스케치한 십자가의 길(14처) 위에 참여자들이 저마다 방식으로 색칠하면서, 수난과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의 얼굴에 머무르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외 골롬반 소식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중앙 JPIC 코디네이터 에이미 에체 베리아 씨가 1월,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산하 생태 태스크 포스 팀의 공동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었습니다. 골롬반평신도선교사로서 20년 넘게 칠레에서 선교한 바 있는 그는 정의·평화와 하느님 창조질서 보전(JPIC) 분야에서 오랫동안 대내외 활동을 해왔습니다. 에이미 씨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적 회심을 위한 교황청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사진 제공: 아일랜드 지부



2021년 5월, <국제가톨릭기후운동> 이사회가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했을 때(왼쪽에서 두 번째가 에이미 씨)

아리랑TV, 골롬반회 선교사 소개

3월 14일에 방송된 아리랑TV <Diplomat Talks> 프로그램이 줄리안 클레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을 인터뷰하며, 성 패트릭의 날과 한국에서 선교한 아일랜드 출신 골롬반 선교사들, 골롬반회 역사를 소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측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서 봉사와 헌신을 실천했다.”라고 소개하며 임피제 신부, 민수왕 신부, 엔다 수녀, 미리암 수녀 등 선교사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 또는 아리랑TV 홈페이지에서 “Diplomat Talks”로 찾으시면 됩니다.



출처: 아리랑TV

<오르프와 함께하는 쉼, 움직임> 프로그램

성소 담당 구화 루까노 신부가 권경연 마리 요한니타 수녀(노틀담오르프연구소장)와 함께 청년을 위한 오르프 슈베르크(Orff-Schulwerk)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3월 15일~6월 14일(매주 화) 19:30~21시 서울 골롬반 선교센터 강당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악기, 리듬과 소리, 몸의 움직임과 노래 등이 어우러진 쉼과 힐링의 시간입니다. 3월 1차 모임에 이어 2차 모임(4/19~5/10), 3차 모임(5/24~6/14)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39세 이하 청년, 직장인은 성소국 02-924-3048 또는 카톡ID: k_orff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매달 둘째 주일 오후 2~5시에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과 온라인 모임을 병행합니다.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23세~40세 남녀 신자는 링크(bit.ly/관심자모임신청)로 접속하여 신청한 후 참여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문자(010-3817-0567)를 부탁드립니다.



골롬반 국제 청년 모임

작년에 이어서 골롬반 국제 청년 모임(CIYE)이 4월부터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CIYE는 여러 나라 청년들이 선교사들과 만나 신앙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주어진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온라인 모임(영어로 진행)입니다. 39세 이하 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문자로 신청(신청순 3명)

*골롬반평신도선교사센터 010-3817-0567



골롬반 선교

2022년 봄호 vol.121



표지 이야기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이재훈 아오스딩 신부가 가톨릭 청년들과 함께 그들이 시작한 가계에서 축복식을 하고 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미얀마 청년들을 응원하며 곁에서 동반하고 있다. (관련 글 16~17쪽)

사진 제공: 이재훈 신부

편집실 Tel. 02-927-2705
kor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orseoul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발행일 2022년 4월 1일
발행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발행인 서경희(스테파노) 신부
편집장 안인성(패트릭) 신부
편집위원 노혜인(안나) 선교사
취재편집 김소영(세실리아)
번역 배영재(요세피나)
디자인 아이디퍼런스
인쇄 동진인쇄

지난 1월 23일 임명된 한국지부
지부장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오른쪽), 부지부장 양창우 요셉 신부,
두 선교사 뒤로 본회 후보인 골롬반 성인의 동상이 보인다.



사제 성소 모임

때 매월 첫째 일요일 9:30~14: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동소문동)

문의 구화 루까노 신부
010-8686-1918
korvocation@columban.or.kr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때 매월 둘째 일요일 14:00~17:00

곳 골롬반평신도선교사 센터
(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10-3817-0567
clmkorea@gmail.com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일요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이애리사 엘리사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지원사제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korassocodi@columban.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